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전영화 | 편집인 : 이계홍 |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 T. 02) 733-0303 F. 02) 733-0306 | 인쇄 : (주)한우리SJM

2019년 (불기 2562년) 2월 26일 (화)

<http://dongguk.info>

제247호

윤성이 교수 총장 선임

“활기찬 동국으로 면모 일신”

동창회관 충무로 이전 추진

모교 제19대 총장에 윤성이(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취임식은 오는 2월28일 오전 11시 모교 중강당에서 거행된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자광스님)는 2월8일 제317회 이사회를 열고 윤성이 교수의 총장 선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앞서 이사회는 1월30일 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로부터 최종 총장후보자로 △윤성이 모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조의연 모교 영어영문학과 교수와 외부 1인 등 3인을 추천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이사 13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했다. 신임총장의 임기는 2019년 3월1일부터 2023년 2월28일 까지 4년이다.

윤 신임총장은 모교 농업경제학과(83/90)를 졸업하고 1994년 일본 쭈쿠바대학에서 환경과학연구과 석사학위, 1998년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지구시스템공학과 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0년도부터 모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미래인재개발원장,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일반대학원장 등 학내 보직을 두루 거쳤다. 미래인재개발원장 재임 시절 학생 역량강화 시스템인 ‘드림패스’를 국내대학 최초로 운영해 대학이 재학생의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학생 관리의 편의성과 질 제고로 취업률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윤 신임 총장은 인사에서 “〈Energize Dongguk〉이란 슬로건 아래 모교가 ‘공헌으로 존경받는 세계 100대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역동적인 변화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구성원들이

존중과 소통, 참여를

통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신임총장은 특히 “총동창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대학 발전의 공동축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1월15~16일 접수한 제19대 총장 후보자로는 모두 11명이 지원했다. 교내에서는 고유환(북한학과) 김상겸(법학과) 박명호(정치외교학과) 송일호(경제학과) 유국현(화학과) 윤성이(식품산업관리학과) 이상일(건설환경공학과) 조의연(영어영문학과) 허남결(불교학부) 교수 등이 지원했다. 1월18일 총추위 회의를 열어 지원자에 대한 자격여부를 심사하고, 총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견 발표와 토론 순서, 방식 등을 결정했다.

1월22일 총추위원을 대상으로 한 정견 발표, 1월28일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토론회를 가진 후 1월30일 투표가 진행돼 윤성이 교수가 최다 득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이 신임 총장 인터뷰 4면)

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동창회관의 충무로 영상센터 등지는 명실상부한 동창회관이 될 로터스관이 완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총동창회는 그동안 2007년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충무로 영상센터 내 동창회관이 들어선다는 꿈에 부풀었다.

이후 모교 당국이 제반 사정으로 충무로 영상센터의 개발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김희옥 총장 시절 캠퍼스내 혜화문 일대에 108주년기념관을 신축하여 이곳에 동창회관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동문들의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108주년기념관은 2015년 총장이 보광스님으로 바뀜으로써 신축안이 지연되었다. 보광 총장스님은 2017년 5월 108주년기념관 건립계획의 불씨를 되살려 ‘로터스관’으로 명칭을 바꿔 기공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이 때 전영화 회장은 로터스관의 성공적인 건설을 성원하는 뜻에서 보광스님에게 건립기금 3억원을 전달한 바 있다. 로터스관 건립은 신임 윤성이 총장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총동창회의 충무로 영상센터로의 이전은 향후 모교와 동창회간 소통과 상생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 퇴계로3가 충무로역과 인접한 충무로 영상센터 건물. (옛 중앙대 필동병원)

윤성이 총장 프로필

- 1990년 동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 1998년 일본 동경대학교 지구시스템공학과 공학박사
- 2000년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현)
- 2013년 동국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장
- 2014년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 2016년 한국사찰림연구소장
- 2017년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장
- 2011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위원
- 2011년 로컬푸드운동본부 공동대표
- 2014년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 수상
- 2014년 동국우수연구자상 수상

정기이사회 및 총회 3월28일 개최

올 첫 상임위, 차기집행부 선출 추대위 구성

본회 2019년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오는 3월28일(목) 오후 6시30분부터 모교 중강당에서 개최된다.

상임위원회는 1월25일(금) 오후 6시 동창회 회의실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정기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안 △제28대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추대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정기 이사회 및 정기총회는 3월중에 개최한다는 회칙에 의거, 3월28일(목) 오후 6시30분 이사회를 개최하고, 뒤이어 7시

부터 정기총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본회 회칙 제10조(임원의 선임)와 회장 및 감사 선임 규정 제2조(추대위원회 구성 및 해산)에 따른 추대위원회는 각 대학, 지역, 직능별 동창회 등 산하 조직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15인으로 구성했다.

이날 보고사항으로는 모교 19대 총장 선출 추천위원회 구성과 주요 진행 일정, 총장후보 지원자 명단 소개가 있었다.

회장 및 감사 후보자 등록 접수

추대위원회 열어 업무일정 등 확정



▲ 라동영 위원장.

제28대 회장 및 감사 추대위원회는 1월31일(금) 오후 6시 동창회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라동영(불교59) 위원, 부위원장 김오현

(체교76) 위원, 간사 안영찬(경영85) 위원을 뽑았다.

이날 회의는 '회장 및 감사 선임규정' 내용 보고에 이어 △선임 일정 △공고 내용 등을 논의, 확정했다.

회장 후보자 자격은 △모교 학부를 졸업한 자 △총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고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문사회에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는 자 △본회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출서류로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서약서 외에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소견서를 첨부하

도록 했다.

주요 일정은 △2월1일~2월28일 후보자 등록 공고 (동창회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밴드, 동창회보 등) △2월25일~3월7일 후보자 등록 접수 △3월12일 추대위원회 2차 회의 (후보자 심사 및 후보자 선출) △3월20일 회장 및 감사 후보자 추천사항 총동창회 상임위원회 보고 △3월28일 정기총회 의결 등이다.

추대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라동영(4.19혁명동지회장) △법타스님(인철67, 불교대학) △이경석(도시공학67, 공과대학) △고용규(정외74, 사회과학대학) △김상일(건축75, 모교 대학평의회의장) △김애주(영문76, 여자총동창회장) △김오현(사범대학) △김문선(전자79, ROTC동문회장) △문한성(법학79, 법과대학) △이계문(공경80, 7080동문회장) △윤재민(사학81, 언론홍보대학원동창회장) △김종필(정외82, 동공회간사장) △조덕형(조경84, 경주직할동창회장) △안영찬(경영85, 경영대학) △차연신(연영85, 예술대학)

회장 및 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

본회 회칙 제10조(임원의 선임)에 의거,
제28대 총동창회장 및 감사 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해당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 **후보자격** : 모교 학부 졸업자, 동창회 발전에 기여 및 동문사회에

신망을 받는 자, 본회 재정적 지원 가능 자

● **제출서류** :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지정 양식), 이력서, 졸업증명서,

서약서(지정 양식), 소견서 (자유 양식)

● **접수기간** : 2019년 2월 25일 (월) ~ 3월 7일 (목) 14:00까지

● **접수처** : 총동창회 회장 및 감사 추대위원회 (Tel. 02-733-3993)

2019년 2월 1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사설

모교 법인 혁신은 합당한 개방이사 선임이 필수다

모교 제19대 총장 출범에 즈음하여 대학 구성원들의 동국 발전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것은 올해 개교 113주년을 맞이한 모교가 총장 선출을 계기로 그동안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총장 선발 과정에서 보듯, 그것을 꼭 기대만 할 수 없다는 회의가 드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현재 모교 법인이사회는 이사 13명 중 승려 9명과 개방형 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발전의 견제와 균형, 비전을 제시해야 할 개방형 이사까지도 사회적 명망가나 전문가 그룹도 아닌 친 종단적 인사로 짜여져 있다. 모교에 가장 많은 애정과 조력을 아끼지 않는 총동창회는 한 사람도 이사로 참여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아래서 과거에 종단이 학교법인을 좌지우지하고 총장 선출과정에 관여했던 것을 우리는 목도해왔다.

이같은 사례는 이번 총장 선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 위원 26명중 종단 추천 4명, 학교법인 이사장 추천 3명으로 구성돼 표면상으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종단과 법인의 의도에 맞춘 총장 선출권을 행사했다. 학교법인은 종단의 대리인인데 종단에서까지 굳이 총 추위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시각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학교법인 이사장 총추위원 뒷에 불교관계자 를 내세우면서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했거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운동선수 미투운동에 최종 책임을 져야할 인사까지 포함되어 자격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종교재단인 연세대의 예를 보면, 성직자가 전체 법인이사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대신 사회적 명망가, 재력가, 전문가 중심의 이사진을 구성해 대학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있다. 그러나 모교 법인은 성직자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는 이같은 일방적 성직자 이사 파송은 결과로서 보듯이 모교 위상이 날로 떨어지고, 재정빈곤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정성을 모으면 동국 미래가 달라집니다

● 임원회비 및 동창회비

- 고문	100만원 이상	- 부회장	100만원	- 지도위원	30만원
- 상임이사	20만원	- 이사	10만원	- 연회비	3만원

● 납부방법 : 국민은행 006001-04-237869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지로납부 7500891 (우편물 발송시 동봉함)

올해 장학금 1억원 확정

동국장학회 이사회, 사업계획 등 의결



▲ (재)동국장학회 이사회는 2019년 재학생 장학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재단법인 동국장학회(이사장 전순표, 농학53)는 2019년도 재학생 장학금으로 2백만원씩 50명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동국장학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앰배서더호텔 홍보각에서 2018-3차 이사회를 열고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장학금 지급 △학술 연구 및 문화체육발전의 지원 △동창회보 발행 등을 진행하며 총 예산액은 4억6천150만원을 책정했다.

2018년도 가결산 보고에서는 총 수입액이 4억7천775만3251원이었으며, 장학금은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는 전 이사장을 비롯 원용선 홍파스님 송석환 김진문 전영화 정환민 박대신 김오현 문선배 이사와 김진익 최대식 감사가 참석했다.

한편 임원들은 장학기금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 동국인이 참여하는 적극적 모금활동을 펼쳐 줄 것을 총동창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동국장학회 3월28일 장학금 수여

1인당 2백만원 … 단위동창회 추천도 받아

재단법인 동국장학회의 2019년도 서울캠퍸스 장학금 수여식이 오는 3월28일 오후 6시 중강당에서 열리는 총동창회 정기 이사회 및 총회 행사에 앞서 진행된다. 장학금은 지난해 12월 동국장학회 이사회 결정에 따라 총 1억원을 50명의 재학생에게 200만원씩 지급한다.

장학대상자 선발은 서울 및 경주캠퍼스로부터 각 단과대학 1명씩을 추천받고

총동창회 활동과 연계해 지역, 학과, 직능별 단위 동창회의 추천을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11일 장학생 추천의뢰 공문을 모교와 해당 단위 동창회에 발송했으며 추천 기간은 2월26일까지이다. 최종 장학생 선발은 오는 3월7일 열리는 동국장학회 이사회에서 심의 확정된다. 한편 경주캠퍸스 장학금 수여식은 3월 중에 전달될 예정이다.



▲ 정환민 본회 사무총장이 총추위 공개 토론회에 앞서 이은기 후보의 부적격성을 성토했다.

모교 제19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에 동문대표로 본회에서는 전영화 총동창회장과 박대신 수석부회장 등 2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총추위는 △대표불교조계종 대표 4인 △사회인사 대표(학교법인 이사장 추천) 3인 △동문 대표 2인 △교원 대표(각 단과대학 1인) 12인 △직원 대표 4인 △학부생 대표 1인 △대학원생 대표 1인 등 총 27명이다. 총추위는 실무위원회를 따로 운영했다.

1월8일(화) 열린 총추위 1차회의에서 총동창회 대표인 전영화 위원(동국대 총동창회장)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안 가운데 “제7조(현 보직자의 총장후보 대상자 지원) ① 현 대학 교무위

원급 이상 보직자(현직 총장은 제외한다)가 총장 후보대상자에 지원하려면 현 보직을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사퇴하거나 직무정지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 가운데 “총장도 보직자로서 예외로 한다면 후보자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해 현 총장도 후보자로 지원하려면 접수 전에 보직을 사퇴, 직무정지 후에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전영화 위원은

“법인이사장이 추천하는 사회인사 대표 위원은 30만 동문중에도 자격이 충분한 인사가 많은데 흡결이 있는 인사를 추천한 것은 유감이다”면서 “대표 추천에 좀 더 신중하고 대학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동문이 많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환민 사무총장은 1월28일 오후 2시 중강당에서 개최된 총장후보대상자 공개토론회에 앞서 총장후보자 10명 전원과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에게 “이번 총장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현 법인이사인 이은기후보는 이사직을 사퇴하던지, 총장후보직을 내려놓던지 택일해야 된다”고 부적격 후보자의 퇴진을 촉구했다.

동국대동창회보 ISSN 2635-9901 번호 배정

본회가 발행하는 ‘東國大 同窓會報’ 가 지난해 12월27일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한국센터로 부터 ISSN 번호를 배정받았다. 번호는 ISSN 2635-9901번이다.

ISSN 번호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

종 연속 간행물의 식별을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8자리의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등록 표제 및 발행자 등의 서지정보를 ISSN 국제센터에 등록하여 이 정보를 국제적으로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9 정기 이사회 개최

본 총동창회 회칙 제1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오니 임원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 2019년 3월28일(목) 오후 6시30분
- 장 소 : 모교 중강당 (본관 3층)
- 안 건 : - 2018년 결산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 회장 및 감사 후보자 보고
- 회 비 : 없음

2019년 2월 15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2019 정기 총회 개최

본 총동창회 회칙 제15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및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하오니 회원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 2019년 3월28일(목) 오후 7시
- 장 소 : 모교 중강당 (본관 3층)
- 안 건 : - 2018년 결산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 회장 및 감사 선출
- 기타
- 회 비 : 없음

2019년 2월 15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www.straw.co.kr

業界 48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 강남 중심지 14층 사옥건물 보유.
- 다년간의 자체 경험과 Know-how를 바탕으로 완벽한 자체 자동화시스템 구비.
- PP, PS, OPS, PET 등 재질에 관계없이 성형, 인쇄할 수 있는 국내최대 설비시설 보유.

상경물산주식회사
ISO9001 품질보증체제 인증업체
FSSC22000

대표이사 : 李 相 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0 상경빌딩 14F TEL : 02-557-4757 FAX : 02-556-3866

www.외동석재.nasoft.kr

경주 남산석 불교조각의 명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2610-4 대표전화 _ (054) 777-0404, 776-9500~3 FAX _ (054) 776-9504
웹하드 _ ID : wdston PW : 7770404 무료전화 _ 080-855-9500 E-mail _ od0404@daum.net

 외동석재
oedong stone company



“세계 100대 대학, 국내 10대 대학 진입 달성하겠다”

윤 성 이 모교 제19대 총장

모교 신임 윤성이 총장(55세·농업경제학과 83학번)은 강력한 포스가 느껴지기보다는 편안하고 따뜻한 품성의 소유자로 보인다. ‘대학 총장’ 하면 권위와 위엄의 지체로 여기는데 그것을 과감히 깬 모습이다. 젊은 패기가 느껴질 정도로 열정과 활력이 넘치고, 스피치 하나하나에도 자신감이 넘쳐 있다. 모교 제19대 총장 취임준비로 바빠 움직이고 있는 윤 신임 총장을 지난 2월13일 법학관 3층 총장 임시사무실에서 만나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는 “임기동안 세계 100대 대학, 국내 10대 대학 진입을 달성하고, 재정안정화특위 등을 구성해 2022년에 연구비 1,100억원을 확보하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화쟁형 인재발굴과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취임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역대 가장 젊은 총장으로 선임됐다는 데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동안 경쟁했던 총장 후보자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후보님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해 학교발전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총장으로 모시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모아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불교가 지향하는 화쟁 정신과 융합의 정신을 토대로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총장후보로 나서면서 내건 공약들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4년보다 눈부신 학교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초심을 잊지 않고 우리 대학 발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활기찬 동국을 만들어 제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공헌으로 존경받는 대학건설

- 대표 공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대학 환경이 급변하는 때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대학의 취약점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이어갈 것은 이어가되,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의 취약점은 재무구조가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등록금 비율이 꽤 높은데 40% 선까지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대신 다른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해야지요. 저는 전학이념/지속경영/교육공헌/연구공헌/역량강화 영역으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공약들은 “존중, 소통, 참여”의 가치를 바탕으로 달성될 것 같습니다. 저는 “Energize Dongguk(활기찬 동국)”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활기찬 동국’은 몇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동참해야 이루어지는데 제가 교량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불교 최고 종립대학으로서 불교인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불교 교양교육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불교

교양강좌도 개설할 것입니다.”

윤 총장의 목표는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세계대학평가 100위 이내 학과 수 10개, 국내대학 평가순위 10위, 연구비입금 액 1,100억원, 누적기부금 600억원(등록금 외 수입증가액 100억원 별도) 확보다. 총 1,700억원 규모다. 재정안정 다각화를 위해 법인과 함께 ‘재정안정화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학교의 중장기 재정 리스크를 선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부자에게는 맞춤형 기부상품을 개발하여 총장이 직접 찾아가 유치할 계획이다. 불교산업진흥원을 통한 1,500억 원 규모의 관련 정부 사업 참여와 국제교류협력사업 참여, 국제여학원의 해외 분소 설치 등을 통해 등록금 외 수입원을 창출한다.

“모교는 장점이 많은 대학이다”

- 모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진단하신다면?

장점으로는 첫째, 서울 4대문 안에 있는 유일한 4년제 종합대학으로 지리적 조건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불교종립대학으로서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빈곤이라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불교정신을 가졌다 는 점입니다. 셋째는 대한민국의 근대역사와 자존심을 지켜온 민족사학이라는 것입니다. 동국대학교는 빼앗긴 나라를 교육을 통해 되찾고자 했던 불교 선각자들의 신념으로 개교한 대학입니다. 수많은 선배들의 희생으로 나라를 되찾고, 나라에 필요한 인재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일제 탄압으로 두 차례나 폐교 조치된 것으로 보아도 민족 동국으로서의 위상은 확인됩니다. 민족문화와 민족언어를 꽂고 피운 대학이 바로 동국대학교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잘 살린다면, 세계 수준의 명문사학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점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에너지가 분산되었다는 점을 듣다.

- 캠퍼스 활용 방안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동국대의 랜드마크가 될 ‘로터스관’ 을 설계도를 보완해 이 지역사회 최고의 상징 건물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무원의 불교역사박물관 건립 계획을 우리 대학의 수영장 부지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유치하겠습니다.”

‘로터스관’ 최고 건물로 지을 터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공휴 라운지를 설치하여 캠퍼스가수업을 듣는 공간에서 함께 공부하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 바꾸겠습니다. 캠퍼스가 서울의 한 복판에 소재한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로터스관 신축과 함께 장충단 공원에서부터 캠퍼스화 하도록 건물을 앉히는 방안, 전철 동대입구역에서 법학관까지 비 한방을 맞지 않고 드나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영장 부지에도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로터스관-동국관-학술문화관-혜화관 3,4층이 하나로 연결할 수 있도록 캠퍼스를 재구성하고, 후문에서 본관까지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이동하도록 길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산학협력 공간을 확보하고, 외국인학생 기도실도 캠퍼스 안에 설치하겠습니다.”

4차산업 대비 화쟁형 인재 육성

- 인재 발굴 방안은 어떤 것습니까?

교육혁신원을 설치하여 미래 인재 육성 정책을 일원화하고 인재발굴과 고등 교육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혁신원은 IR Center와의 협업을 통해 학과 또는 단과대에서 진행하는 목표제 시형 교육과정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그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회 수요 역량 및 학생 필요 역량을 견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화쟁형 인재육성에 힘쓰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통합과 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다양한 전문영역을 아우르는 식견과 역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한 화쟁형 인재 육성과 학생

들이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갖추겠습니다.”

- 종단과 교수, 학생들에게 한마디씩 하신다면?

“종단은 종립대학 위상을 높이는 데 보다 더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대학 중 우리 대학이 기부금 실적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종단과 스님들의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감사드리면서, 더욱 배전의 협력을 당부합니다. 교수진은 자존심과 긍지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동국대 출신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실력을 쌓아주기를 부탁합니다. 그 여건과 토대를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동문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

- 끝으로 동문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당부보다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제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긴밀히 유대하고 소통해서 우리 대학 발전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협력을 당부하면서, 그 교량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모교 발전이 동문사회의 자긍심이 되고, 사회적 그레이드를 높이는 관건이 됩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도 모교에 대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강공히 당부합니다.”

윤 총장은 부인 임지현 여사(48)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좌우명은 감사, 배려, 존중, 초·중·고교 시절 학생회장을 지냈다. 좌우명에 충실했던 생활이 지지를 받는 바탕이 되고, 리더쉽을 발휘하는 근간이 되었다고 여긴다. 대학 동기인 이창근 한국투자증권 부사장이 “대학 다닐 때 자네와의 우정이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을 때, 삶은 관계 속에서 소중한 것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인터뷰 이계홍 홍보위원장〉

동국의 위상 더욱 빛났다 …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

대상 이민희 고문, 문화 홍파스님 · 정치 최재성 · 경제 민홍기 · 사회 오정석 · 학술 정승석 동문



▲ 전영화 동창회장, 이사장 자광스님, 이민희 고문, 원용선 고문, 총장 보광스님(왼쪽부터)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위해 문화아카데미, 야유회, 체육대회와 등산모임, 사진동호모임, 문학모임, 골프 모임 등의 소모임을 활성화하며 회원 참여율을 높여 왔다.

문화부문 홍파스님



정치부문 최재성



경제부문 민홍기



사회부문 오정석



학술부문 정승석



30만 동국가족의 각계각층 활약상과 자부심이 크게 빛났다.

한 해동안 동국가족이 이룩한 성과들을 자축하고 내년에도 힘차게 도약할 것을 다짐하는 ‘2018 동국인의 밤’ 행사가 경향 각지 동문 6백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지난 12월13일 저녁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를 동국인의 열기로 가득 채운 동국인의 밤은 1부 자랑스러운 동국인 시상, 2부 연회 및 작은 음악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명예회장 이민희(정치52, LA거주)동문에게 ‘2018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대상’을 시상하면서 막을 연 시상식은 문화부문에 홍파스님(불교64,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정치부문 최재성(불교84, 4선 국회의원), 경제부문 민홍기(경영74, 유엔아이 대표이사), 사회부문 오정석(농학72,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학술부문 정승석(인철75, 동국대 교수) 동문에게 각각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을 시상했다. 최우수단체상은 84학번동기회가 받았다.

“동국은 더 위대해질 수 있다”

이날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1918년 만해 한용운 선배님에 의해 출범한 우리 동창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였다. 그 전통과 역사를 이어받은 우리 동문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동국인의 위상을 크게 떨

치고 있지만 더 위대해지고, 더 강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 영상 법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축하 영상 법어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은 동국발전이 곧 한국불교의 미래이며 인재불사라는 점에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상 시상은 전년도 수상자인 원용선(영문59, 남양이엔씨 회장) 본회 고문이 맡았다. 원 고문은 “오늘 대상을 받은 이민희 고문은 한성임시정부 산파역이었던 이규갑옹의 자제이며 기미독립선언 33인 이갑성옹을 장인으로 둔 애국지사 자손으로 일찍이 미국에 건너가 미주한인회장, 재미 대한민국체육회장, 미주동포후원재단 이사장직을 역임하시고 그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받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며, 특히 우리 동국인임이 영광스럽다” 소개했다.

이민희 고문은 소감인사에서 “이 상은 우리 동문들이 주는 상이라서 미국에서 일부러 건너왔다. 남은 생애동안도 동국인임을 자랑삼으며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부문별 시상

문화부문 홍파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종단 연합과

세계불교 유대에 진력하였다. 동국장학회 이사 등으로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앞장서 왔다.

정치부문 최재성 동문은 올해 6.13 국회의원 송파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서울지역에서 큰 정치 기반을 다졌다. 4선 중진으로 당 대변인, 사무총장, 정당발전위원장의 요직을 역임하는 등 신망이 높은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부문 민홍기 동문은 문구용 잉크부문 세계 1위, 태극삼 수출 국내 1위, 수성안료부문 세계5위를 목표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의 CEO로 2016년 무역의 날에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사회부문 오정석 동문은 연 매출 8조 규모의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장을 연임하면서 4차산업시대 주류유통 선진화를 주도하고 있다. 올해 TV조선의 ‘상생경영상’과 동아일보의 ‘동반성장대상’을 수상했다.

학술부문 정승석 동문은 한국연구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등에서 30억원의 연구비를 수주하여 인문계 학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대형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불전해설사전을 비롯한 수많은 불교계 서적을 저술했다.

최우수단체상 ‘84학번 동기회’

단체체부문 84학번동기회(회장 윤성규)는 2014년 입학30주년을 계기로 동기들끼리 소통하는 모임으로 발전시키기

해외 파병 군인 등 영상 메시지

정환민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는 또 정재철(정치52, 전 국회의원) 본회 11~16대 회장을 비롯 정미숙(연영84, 가톨릭관광대 교수), 한상권(경영89, KBS 아나운서), 사기순(국문84, 도서출판 민족사 주간), 백홍민(제교10, 남수단 파견 육군항공대 대위, ROTC 52기), 김정도(경영4년, 총학생회장) 등의 축하 영상메시지가 소개돼 동국인의 긍지를 공유했다.

작은음악회, 동문들 재능 기부

2부는 사회자 차연신(연영85, YS PMC 대표이사)동문의 팝송 ‘트위스트 어게인’을 오프닝 송으로 동국동문합창단 공연, 유정희(농학77)동문의 기타연주, 김민희(똑순이 국민배우)동문의 음반 취입곡 ‘갈기갈기’ ‘당돌한 여자’, 조충미(교육81, 작은마을 허준도서관장)동문의 ‘누구 없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임희선(행원12)동문의 ‘눈이 내리네’ ‘자시삼경’, 김부언(행원79)동문의 ‘춘향가’ 등의 열창이 이어져 동문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성재 고문, 매년 TV 2대 협찬

법인 이사장 자광스님, 총장 보광스님, 이대원 경주캠퍼스총장, 전영화 총동창회장이 협찬한 대형 TV 4대를 놓고 진행된 행운권 추첨에서는 김성재(정치58) 본회 고문 등이 당첨 행운을 안았다.

이날 행운권에 당첨된 TV를 받은 김성재 고문은 내년(2019년) 동국인의 밤 행사부터 향후 5년간 매년 2대씩 10대의 43인치 TV를 협찬하겠다고 본회 사무처에 알려왔다. 행사에는 송석환 제25대 회장을 비롯 많은 동문들이 협찬금 등을 보내왔다. (15면 참조)

2018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 수상 이민휘 동문

“동국대 나온 것이 내 생애 가장 큰 보람이자 궁지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가 수여하는 2018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을 수상한 이민휘(52학번·정외과) 미주동포후원재단 명예이사장은 9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다. 훈칠한 키에 건강미 넘치는 얼굴, 빛나는 안광, 깨끗한 피부가 인상적이다. 쏘아보는 듯한 눈빛은 카리스마가 넘친다. 약수할 때, 큼직한 손의 악력은 상대방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60대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보인다. 이 회장은 미주한인회 창설의 산파역이면서 산 증인이다. 동국대 미주동문회가 어느 대학보다 역사가 깊고 견고한 결속력으로 뿌리를 내린 것도 이 회장의 헌신의 힘이 크다. 총동창회 송년회가 열린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호텔에서 그를 만났다.

- 먼저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 수상 소감부터 한 말씀 주시지요.

“나는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동창회 걱정을 했습니다. 전영화 회장 체제가 총동창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토대를 구축한 데 대해 안도했고, 고마워했습니다. 내가 동국인 대상을 받은 것은 미주 한인사회와 동문사회를 수십 년동안 꾸려온 공로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동창회 안정, 무엇보다 기뻤다”

이 회장과 인터뷰가 진행 중인데도 시시각각 후배 동문들이 찾아와 인사를 하는 틈에 인터뷰를 제대로 진행 할 수 없었다. 여전히 그의 명성과 관록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인사하는 후배들을 깎듯이 대하면서도 인터뷰 맥락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응했다.

이 회장의 경력은 독특하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에 1년 다니다가 자진 퇴학하고 동국대학교에 입학한 이력부터가 남다르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국대 나온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 “내 생애 가장 잘한 일은 동국대학을 나온 것이다. 동국대학은 내 고향이다”라는 이 회장은 동국대 재학시절 학도호국단장(오늘의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그는 자신의 대학시절은 문자 그대로 빛나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때도 대학간의 경쟁이 심했는데, 그가 대학생 기개 등에서 서울의 모든 대학을 제압했다고 자부했다.

“동국대 떴다”하면 타교생들 ‘잠잠’

“나는 동대를 다니고 있지만 연대를 1년 다녔으니까 연고전이 있을 때는 연대생들이 나를 데리러 와요. 지원해달라는 거죠. 그때 내 몸에서 광채가 난다고 할 때였어요. 내가 연대 응원석에 앉아있으면 고대생들이 시무룩해져요. 그리고 동대와 연대, 동대와 고대가 야구, 축구 경기를 할 때, 그들이 ‘나무아미타불 도로아미타불’ 외치며 야유를 해요. 그러나 내가 뜨면 하나같이 잠잠해지죠. 꺽쇠리 못하고 곧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지금도 큰 키라고 볼 수 있는 1m80cm에 가까운 장신, 하얀 피부에 귀공자처럼 잘 생긴 얼굴이니 그가 뜬 것만으로도 장안의 화제가 되었으리라 짐작한다.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기도 했지만 명동이 동대생들의 텃밭이 된 것도 그 때문이다.

선친은 독립운동가 · 장인 3.1운동 33인 대표

이 회장은 명실공히 명문 집안 출신이다. 선친이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이규갑(1888~1970) 선생이다. 이규갑 선생 이력을 두산백과에서 그대로 인용하면, 충남 아산 출신으로 한성사범(현 서울사대)을 졸업한 뒤 홍성 의병봉기를 이끌었고, 1919년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전국 13도 대표국민회의 중앙대표, 상하이 임정 실무책임자, 1927년 신간회 경동지회장으로 활동했다.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회장의 미주한인회 경력을 살펴보면, 1971년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을 시작으로 1973년 샌프란시스코 한국라디오/TV방송 회장, 1979년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제12대, 15대 회장, 1980년 캘리포니아한인회 연합회장, 1983년 한미 케이블TV방송 회장, 필립정보통신(주) 회장, 미주동포 후원재단 1대, 2대 이사장, 재미 대한체육회장을 역임했다. 그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 5.16민족상, 체육훈장 거상장, 호국영웅 기장을 받았다. 2016년 이후 미주동포 후원재단 명예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미국 유학후 삼성 이병철 회장 비서 활동도

이 회장은 동국대를 졸업하고 뒤이어 미국 산호세 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귀국해서 삼성에 입사했다. 이병철 회장 측근으로 일했으나 시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면서 회사를 그만 두고 1969년 미국으로 정식 이민을 갔다.

이 회장은 86아시안 게임, 88올림픽 게임 때 조국을 헌신적으로 도왔다던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 재미 대한체육회장을 맡아 교민학생들을 선발해 통역, 자원봉사자로 서울로 보냈다. 이들이 모국에 갔다 온 뒤 모두 모국 사랑의 전사가 되는 것을 보았다. 이때 양분된 미주사회 의 체육회를 하나로 통합시켰다. 그는 어딜 가나 통합의 아이콘으로 통할 정도로 교민회를 하나로 묶는데 헌신했다.

동국대 미주동창회 결성에 앞장

이 회장은 동국대 미주동문회 산파역도 맡았다. 미주한인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동국대 미주동문회를 결성했다. 나이가 든 뒤에는 후배들을 뒤에서 도왔다. 한인회 역사와 동대 미주동문회 역사가 함께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그의 활동 때문에 동국대 미주동문회는 재미 대학 동문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긴 역사(43년)를 자랑한다. 재미 동대 동문회만큼 활성화 된 동문회가 없을 것이라고 그는 자부했다.

후배에게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살아라” 당부

- 끝으로 동문과 모교 재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내 인생관은 선친의 좌우명대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살아라’입니다. 인생은 retire가 없습니다. 나의 이민 생활의 개척자 정신을 후배들도 갖기를 당부합니다. 그것이 우리 동국정신입니다. 아울러 연대와 결속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발전도 그런 연대와 결속 안에 있습니다.” 90을 바라보는 노 선배의 분명한 어조는 큰 울림이 있었다.

〈인터뷰=이계홍 홍보위원장〉

4.19혁명동지회 | 송년회 모임

4.19혁명동지회(회장 라동영, 불교59) 송년회가 지난 해 12월28일(금) 종로 한일관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회원 50여명은 59년전 4.19 그날을 회고하며 “한국 민주주의 초석을 다진 숭고한 혁명의 역사성과, 특히 동국대가 주역이었다”는 자부심을 공유했다.

ROTC총동문회 | ‘START UP 2019’ 선포



112 ROTC총동문회는 지난해 12월5일 동문회 결성 30주년기념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START UP 2019’를 선포했다. 26대 총동문회장 김문선(21기) 신임 회장은 “새 집행부는 노향선 전임 회장이 마련한 “JUMP UP 2018”을 업그레이드 해 내년에는 112 ROTC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112ROTC동문회 정기 이사회 겸 신년회가 1월10일 용산 전쟁기념관 컨벤션에서 열렸다.

여자총동창회 | 정기총회 및 송년회

여자총동창회(회장 김애주, 영문76, 모교 교수)는 12월17일(월) 역삼동 아르누보호텔에서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조직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집행부의 유임을 결의했다. 2019년 사업계획으로 △3월18일 1학기 장학금 수여식 △6월13일 연극관람 등 문화행사 △9월23일 2학기 장학금 수여식 및 세미나 △12월16일 송년회 개최안을 발표했다.

광주전남동창회 | 퀴즈게임 등 즐겨

광주전남동창회(회장 박태현, 경영68) 송년회가 가족동반으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12일(수) 치평동 솔빛마루에서 열렸다. 이번 송년회는 예년보다 협찬이 늘어 푸짐한 경품을 놓고 퀴즈게임, 행운권 추첨 등으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매월 8일 월례회를 개최하며 선후배간 우의를 다지며 동국인의 자부심을 키우고 있다.

경주직할동창회 | 회장에 조덕형 동문



▲ 조덕형 회장 ▲ 공석돈 동문 ▲ 윤병길 동문

직할경주동창회 신임 회장에 조덕형(조경84) 동문이 취임했다. 제26대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이 이대원 경주캠퍼스총장, 총동창회 박대신 수석부회장 등 내외 귀빈 및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24일(목)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은 8대 회장 공석돈(회계79, 백상개발 회장)동문과 경주시의회 의장 윤병길(사대원92)동문이 받았다. 전임 집행부 이상록 이임회장과 김홍섭사무총장에게는 이대원 캠퍼스 총장 공로패와 재임기념패를 전달하고 노고를 기렸다.

부산동창회 | 임시총회 겸 신년회



부산동창회(회장 박진호) 신년회가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30일 연제구 다이아몬드호텔에서 열렸다. 박진호 회장은 “부산동창회의 자존심과 위상 제고를 위해 주변 동문 찾기와 함께 참여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자”고 인사했다. 총동창회에서는 정환민 사무총장이 참석해 격려했다.

인천지부 | 회장 이·취임식

인천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2월12일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열렸다. 이취임식은 박대신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이 안창원 신임 회장에게 회기를 전달한데 이어 이환섭 전임회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 및 이임사, 신임 회장 취임사 및 집행부 임원 추대패 수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부회장=문대성(대학원79, 전 인천대 교수) △사무국장=이창규(화학81, 롯데크로즈 총괄사업본부장)

대구경북동창회 | ‘1인 1선물’ 주고 받기



대구경북동창회(회장 손기범) 2018년 송년회가 지난 해 12월20일(목)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컨벤션에서 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동문들은 2018년을 마무리하는 덕담과 함께 각자가 준비한 선물을 서로 주고 받는 ‘1인 1선물 주고받기’를 통해 행사의 즐거움을 더했다.

대전충남세종동창회 | 회장에 김종욱 동문



대전충남세종시동창회는 1월22일(화) 대전시내 대흥동 중국반점에서 총회를 열고 신임 김종욱(행정71, 더 한힘이더십연구원장) 회장체제 집행부 출범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는 동창회 명칭에 세종시를 포함시키기로 하는 한편 봄·가을 등산대회 및 체육대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수석부회장=이종인(원오스님, 승가76, 前 육군 군종감) △감사=김영현(보광스님, 불교75, 대전 동부 보광사 주지) △간사장=오주영(사법경찰대학원12, (사)한밭국악회 이사장)

전북전주동창회 | 조직활성화 다짐

전북지부(회장 장세균, 철학67, 전북일보 논설위원) 송년회가 지난해 12월10일 전주시내 금향정에서 열렸다.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새로 마련한 지부사무실을 새로 마련한만큼 자주 모이고, 스포츠나 애경사 참여를 통해 조직활성화를 꾀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2월 월례모임은 27일 지부동창회사무실에서 갖는다.

7080동창회 | 변함없는 우정 과시

7080동창회(회장 이계문(80공경, 서민금융진흥원장) 송년회가 지난해 12월3일(월) 충무로4가 대림정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원들은 서로 안부를 나누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우정과시로 모교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 등을 결의했다.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
온라인 상품평 1위**

자동차, 사무실, 헬스장, 골프장, 작업장
언제 어디에서나 투힘 조인트

WORLD'S FIRST ANYWHERE MOUNT!

www.twohim.com

고객용 선물이 고민이라면 투힘에서!

고객들이 언제나 귀사를 기억할 수 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다용도 자석거치대 자동 무선충전 거치대 자석형 클립거치대

조인트 옵티머스 하이브리드

*기업 판촉용 로고인쇄 예시

불교학과동창회 | 회장에 박순 동문

불교학과동문회 신임 회장에 박순(64학번, 전 동대부속여고 교장·전 여성불교개발원장)동문이 만장일치로 추대되고, 감사에는 하준생(83학번) 이학주(83학번)동문이 연임되었다.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해 12월14일(금) 총무로4가 대림정에서 봉행됐다.

이날 '불교학과 명예로운 동문상'은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63학번)을 시상했다. 공덕패는 동문회 발전에 현신한 박종철(67학번) 부회장에게 수여됐다. 한편 대학원 박사과정 이유정, 이향민 두 동문에게는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

정치외교학과 | 신년간담회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고용규, 70학번) 신년 임원 간담회가 1월17일 김희형(56학번) 고문, 이주삼(69학번) 지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2019년 사업계획안을 논의했다. 사업계획으로는 △정외과 조직 활성화 및 내실화 △재정 확충 △사무총장제 도입 △각 위원회 구성 등을 채택했다. △사무총장=조광진(88학번, 브릿지경제 전국부장) △사무1부총장=정성호(97학번, 변호사) △사무2부총장=백승영(06학번, AK프라자)

경찰행정학과 | 회장에 홍성권 동문

경찰행정학과동창회(회장 채한철)는 지난해 12월7일 모교 상록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홍성권(77학번, 유비밸록스(주) 회장)前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 사무총장은 모교 교수인 이창한(90학번)동문을 임명했다. 총회에는 1기인 63학번 이황우, 김영화, 전영화 총동창회장(65학번, 3기)을 비롯 2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82학번 | 회장에 이상민 동문

82학번동기회(회장 김종필)는 2월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4기 출범식을 갖는다. 신임회장은 이상민(농경, 진원테크 대표)동문, 사무국장은 이준삼(회계, 국민은행)동문이 맡았다. 한편 82학번동기회는 후백장학기금 2천만원을 3월중에 모교에 기증하기로 했다.

83학번 | 회장에 김창호 동문

83학번동기회는 2대 회장인 윤성이(농경)동문이 모교 제19대 총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2월19일 임시 회의를 열어 3대 회장에 김창호(영문)동문을 선출하는 등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부회장=송인모(경행) 고현미(체교)

△총무=강재호(가교) △골프회장=이태영(회계) △산악회장=민경준(정외) △하합창부회장=박재호(연영) △장학회장=김현재(전자계산)

84학번 | 회장에 신화섭 동문

동국84동창회(회장 윤성규, 화학)는 12월15일(토) 명동로얄호텔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 행사를 열어 신임 회장에 신화섭(화학) 동문을 선출했다. 기해년 새해 첫 행사로는 1월26일(토) 대한극장 4관(92석)을 대관해 영화 '말모이'를 감상했다. 3월23일(토) 오후 2시 모교 문화예술관 덕암세미나실에서 '비움과 채움'을 주제로 '84학번 휴먼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한편 84학번동창회 집행부가 지난해 12월3일(월) 후배사랑장학금 1천4백만원을 모교에 전달했다. 지난 2016년 1천만원, 2017년 1천2백만원 등 매년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불교대학원총동창회 | 회장에 지율스님

불교대학원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제18·19대 회장 이·취임식이 1월17일(목) 세종호텔에서 봉행됐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석두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임원갑 전임 회장의 이임사, 회기 이양 및 회장 추대 패 수여, 신임 회장 인사, 격려사 및 축사, 신임 집행부 임원 위촉패 수여 등을 가졌다.

경영전문대학원 | 화합과 소통의 시간

경영전문대학원동창회(회장 김창걸)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해 12월3일(월)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이인배 사무처장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는 김진문前 회장에게 학위 영득패, 여자동문회 유순균동문, 골프회장 박천문 동문, 동경산악회장 이진수 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 위로했다. 2부 '화합과 소통의 시간'에는 연예인 허참씨와 가수 설운도씨가 특별출연했다.

사회과학대학원 | 축하패·공로패 수여

사회과학대학원동창회(회장 김석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해 12월27일(목)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렸다. 행사는 축하패 및 공로패 수여, 행운권 추첨 등을 가졌다. 이 자리에에는 이대원 경주캠퍼스총장, 박대신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박진호 부산동창회회장, 문선배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경주직할동창회 조덕형 수석부회장,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동불회 | 60주년행사 입제 법회

불교학생회 출신 모임인 동불회(회장 사기순, 국문84, 민족사 주간)는 신행결사대인 동불사(東佛社)를 결성, 2월19일 모교 학생회관 동불동아리법당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의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입제법회를 봉행했다. 동불회가 60주년을 맞는 2020년 11월21일까지 이어지는 법회는 매월 3째주 수요일에 갖는다.

앞서 동불회는 2월9일(토) 가평 청우산방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재학생 장학금 지급안, 각 학번별 모임 활성화 등의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동행라이온스 | 2명에게 장학금 전달

동행라이온스클럽(회장 홍종표)은 1월23일(수)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배진우(컴퓨터공학 전공 3년) 군과 이유나(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2년)양 등 재학생 후배 및 회원 자녀에게 전달했다.

www.ehsp.co.kr



해 성 약 품 (주)
(주) 진 선 메 디 칼

첨단물류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의료소모품 전문 유통업체

대표이사 안 형 모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소길 33-56
TEL : 043 - 216 - 2541 FAX : 043 - 216 - 2544



ISO 9001 인증

대자기업주식회사

(토공, 비계, 철근·콘, 상·하수도, 금속창호, 포장)

대표이사

조 석 규

(토목 68人)

067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54, 3층 (양재동, 호성빌딩)

Tel. (02) 579-7651~2 / Fax. (02) 579-7650

E-mail. djcc579@hanmail.net

한국공항공사 사장 손창완 동문



손 창완(경 행 74)동문이 지난 해 12월14일 한 국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등 국내 14개 공 항을 통합·관리하는 공기업이다. 1981년 경위 특채로 경찰에 입문해 강남경찰서장, 경기경찰청 3부장, 서 울경찰청 차장, 전북경찰청장, 경찰대

학장을 역임했다.

한편 손 동문은 2월20일 국제공항 협회(ACI) 아시아·태평양지역 이사 직에 선임됐다. ACI는 전 세계 1,900 여개 공항을 운영하는 176개국, 641 개 공항운영 주체로 된 공항 대표 국제기구로 1991년에 설립됐다. 아태,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의 5개 지역본부로 구성됐으며, 한국이 포함된 아태 지역은 49개국 111개 공항운영 주체이다.

현대제철 부회장 김용환 동문



김 용환(무 역 74) 동문이 현대 자동차그룹이 1 월12일 단행한 주요 계열사 인사에 서 현대제철 부회

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983년 현대차에 입사한 이후 현대 차 해외영업본부장, 기아차 해외영업 본부장, 현대차 기획조정실담당 사장 및 부회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기획조정실은 현대차그룹의 30여 개 주요 계열사를 포함해 50여 개 전 체 계열사의 경영전략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그룹 콘트롤타워다.

현대건설 인수와 옛 한국전력공사 의 삼성동 부지 인수, 통합 신사옥 건립 등 그룹 주요 업무를 지휘했다.

현대차그룹 부회장들 가운데 유일 한 책사형 부회장으로 꼽히며 정몽구 회장의 속뜻을 가장 정확히 이해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장 윤범모 동문



윤 범모(미술 72, 모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좌 교수)동문이 2월1 일 국립현대미술

관장에 임명됐다. 198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미술평 단에 등단한 이후 30여 년간 미술비평 가로 활동했다. 중앙일보 기자, 호암 갤러리 큐레이터를 거쳐 가천대 회화

과 교수로 정년퇴임했다.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경주세 계문화엑스포 예술총감독, 광주비엔 날레 특별프로젝트 책임큐레이터 등 을 지내며 다수의 전시 기획을 맡아 왔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올해 개관 50주년을 맞이한 국내 유일의 국립미 술관이다. 서울, 과천, 덕수궁, 청주관 등 모두 4관 체계로 운영되며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국립목포대 총장 박민서 동문



박 민서(행 정 76)동문이 12월 12일 국립목포대 학교 제8대 총장에 취임했다.

지난해 8월 29 일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재선거에서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로 선출돼 교육 부 추천으로 임명동의안이 국무회의 를 거쳐 청와대에서 정식 임명했다.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하며 학생지원처장, 평생교육원장, 복 지사회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대외 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단체 선진화연구회 위원, 전국 시·도의 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전라남 도 정책자문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 원장,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재)신안복지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했다.

취 임 · 영 전

현대기아차 중국사업총괄 사장



이병호(경제76) 동문 이 지난해 11월 현대·기아자동차 중국사업 총괄 사장으로 부임했다. 현대차 해외마케팅 실장을 비롯해 기아차

해외마케팅사업부장, 현대차 미국법인 업무 총괄책임자 등을 역임한 해외마케팅 전문가다.

테크팩솔루션 대표



서범원(경영79) 동문 이 12월5일 동원그룹 계열사인 테크팩솔루션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회사는 유리병, 알루미늄 캔, 페트병 등의

국내 최대 종합포장재 제조기업이다. 두 산제관 시절부터 약 35년간 패키징 분야에서 일해 온 전문가다. 최근 동원시스템즈의 신사업추진단장을 역임하며 무균증 전음료사업 진출을 진두지휘했다.

내일신문 등기이사



김종필(행정82) 동문 이 3월1일 내일신문 주 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된다. 1993년 10월9일 창간된 내일 신문 창간 멤버로 전국 본부장을 거쳐 현재 정치부장으로 있다.

NH농협은행 부행장



박태선(농학82) 동문 이 12월4일 농협은행 부행장으로 선임됐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기획부 팀장과 농협은행 남영동 지점장,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정덕교(회계83) 동문 이 1월31일 한국공항 공사 제20대 부산지역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1990년 공항공사 입사 후 부산 경영지원팀장, 본사 감사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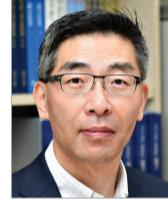
이호중(행정85) 동문 이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국장)으로 영전했다. 환경보건정책관 등 으로 공직 진출후 줄곧 환경부에서 근무해와 환경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 사무총장



이규민(국문87)동문 이 2월11일 경기도 수 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안성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 활동했다.

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김용태(사회85) 동문 이 한국무역협회 대전 세종충남지역본부장으로 1월4일 취임했다.

1991년 한국무역협회에 입사해 국제무역 연구원, 도쿄지부, 아시아중동실 등에서 근무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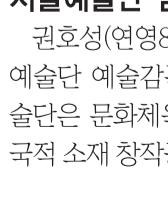
이강일(정보관리85) 동문 이 1월4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에 부임했다. 1990년 한국무역협회에 입사한 이래 우리나라 무역정보·통계 시스템 및 해외마케팅 플랫폼 구축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이윤배(무역87) 동문 이 2월11일 한국화재 보험협회 이사장에 취임됐다. 1979년 농협 중앙회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NH농협생명 전략총괄 부사장, 농협손해보험 사장을 역임했다.

서울예술단 감독



권호성(연영85) 동문이 12월3일 서울 예술단 예술감독으로 선임됐다. 서울예술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로, 한 국적 소재 창작공연을 제작한다.

삼성에스원 상무

임정묵(경행87) 동문이 12월10일 삼성 에스원 상무로 승진했다. 에스원은 국내 최대 방범, 보안, 경비 등의 서비스업체다.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하다 에스원으로 자리를 옮겨 대구 경북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행 사

첫시집 '봉화의 소리' 시 낭송회



선진규(불교55, 김해 봉화산정토원장) 본회 고문이 85세 늦깎이 첫 시집인 '봉화산의 소리' 출판을 기념해 지난해 12월28일 국회도 서관에서 시낭송회를 가졌다. 정세균, 박 영선, 최재성, 박광온 의원과 손해일 국제 PEN한국본부 이사장이 참석했다.

3.1운동 100주년 심우장 기념행사



이재형(불교64, 우성 회장) 동문이 3.1운동 100주년 심우장 기념 행사 대회장을 맡았다.

행사는 3월1일 정오 부터 개최되며 김용표(불교69) 모교 명예교수의 기념강연과 김광식 모교 교수 진행으로 '만해정신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토론회를 갖는다.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스님이 1933년에 지어 1944년 생을 마칠때까지 살았던 생거지이다.

당 선

한국임우회장



전진표(임학60) 동문이 2월21일 한국임우회 제43차 정기총회에서 제22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장을 지냈으며, 현재 강원도민회중앙회 부회장, 수목장실천회 공동대표, 대통령 직속 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수도권·강원 동래정씨 화수회장



정하성(상학67, 유진기업 대표이사) 동문이 지난해 12월27일 교보빌딩에서 열린 동래정씨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화수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회원은 22만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이혜선(국문76) 동문이 한국문인협회 제 27대 임원 선거에서 부이사장에 당선됐다. 1981년 월간 ‘시문학’을 통해 문단에 등단하여 시와 평론을 병행해온 중견시인으로 ‘새소리 택배’ 등의 시집과 ‘문학과 꿈의 변용’ 등의 평론집을 냈다.

수 상

'총효경로사상분야' 대상

이돈희(상학65, 대한노인신문사 수석부사장)동문이 총효경로사상 56년 활동과 세계어버이날·노인의 날 제정 공로를 인정받아 1월19일 도전한국인 '총효경로사상 분야' 대상을 받았다.

불자포교대상 원력상



정주화(한의81, 화생당한의원장) 동문이 12월19일 제30회 불자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했다. 한의사불자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318차에 걸쳐 21,973명의 환자들에게 건강 강상담과 한방진료봉사를 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안상준(법무대학원 16, 구세군사관대학원 대학교 교수) 지난해 12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슬람을 전공했으며, 서울특별시장과 국회교문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KBO 최고령 선수로 재계약
16년 연속 100안타

박한이(경영97)동문이 삼성라이온즈와 재계약, 올해 KBO리그 최고령 선수가 됐다. 16년 연속 100안타, 우승반지 7개로 삼성의 레전드가 되었다.

데뷔 첫해부터 주전 중견수로 130경기를 뛰며 117안타를 쳤다. 이때부터 2016년 105안타까지 무려 16년 연속 100안타를 때려냈다. 그리고 2003년에는 170안타를 뽑아냈다. 최다안타왕에 올랐다.

박동문은 포스트시즌의 사나이다. 우승 반지는 7개다. 52점으로 포스트시즌 최다 득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시리즈 63경기 출전, KBO 최다 안타 57개, 28점으로 최다 타점, 38점으로 최다 득점 등 숱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18시즌 동안 2097경기에 출전했다. 1위 KIA 타이거즈 소속이던 정성훈(39)의 2,223경기와는 126경기 차이다.

2019 신춘문예 당선자 5명 배출

매년 문재 배출하며 최고 문학전통 계승

2019년 신춘문예에서 동국 가족 5명이 당선됐다.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자는 △조선일보=소설 서동욱(대학원 국어국문14) △중앙일보=평론 정기석(대학원 국어국문15), △동아일보=소설 장희원(국어국문12) △경인일보=시 하채연(학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16) △한국경제=시 구본승(대학원 국어국문17) 등 5명이다.

조선일보 소설부문 서동욱 동문의 당선작품은 <당장 필요한>이다. 중앙신인문학상 평론부문 정기석 동문은 평론 <느낌의 곤란함에 대한 몇 가지 명제-김상혁과 황혜경의 시를 중심으로>로 당선됐다. 동아일보 소설부문 정희원 동문은 작품 <폐차>가 당선됐다.

경인일보 시부문 하채연 동문의 당선작품은 <숲에서 깨다>이며, 한국경제 시부문에 당선된 구본승 동문의 작품은 <불고기의 잠>이었다.

신춘문예 외에도 △김덕희 = 한무숙문학상(소설부문) △김정신 = 웅진문학상(동화부문) △문태준 = 2018 목월문학상(시부문) △박상영 = 젊은작가상(소설부문) △서희원 = 2018 현대문학상(평론부문) △손홍규 = 이상문학상(소설부문) △이소호 = 2018 김수영 문학상 △이정연 = 중앙대 의협문학상(소설부문) △장미진 = 2018 창비신인문학상(소설부문) △최은미 = 대산문학상(소설부문) 동문등이 각종 문학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 인사

인천지방경찰청장 이상로로 동문



이상로(경행82) 동문이 지난해 11월29일 치안정감 승진과 함께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역임했다. 경무·정보·교통 등 다양한 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처리가 정확해 조직 내 신뢰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조용식 동문



조용식(경행82) 동문이 지난해 11월29일 치안감 승진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에 부임했다. 1987년 경찰에 들어와 김제경찰서장·정부서울청사경비대장·서울 수서경찰서장,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서울경찰청

■ 경무관 전보

- △윤명성(대학원박사) = 경찰청 대변인
- △우종수(대학원박사)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 △하상구(대학원박사)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장
- △이문수(경행80) =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 △이상률(대학원박사) = 부산지방경찰청 제3부장
- △김광호(행원석사) = 부산 해운대경찰서장
- △박형길(경행81) = 수원 남부경찰서장
- △현재섭(대학원박사) = 강원지방경찰청 제2부장
- △박지영(대학원박사) = 전남지방경찰청 제2부장
- △김소년(경행84) = 창원 중부경찰서장
- △윤소식(최고위과정) = 서울 강서경찰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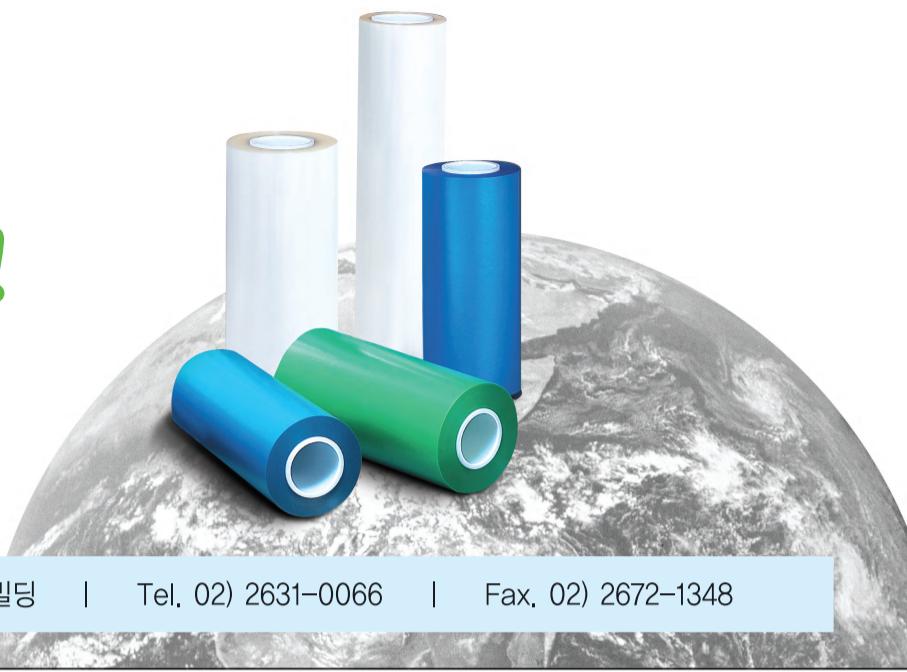
■ 총경 전보

- △이범규(경행79) = 서울청 정보화장비과장 △강석현(경행82) = 인천청 외사과장 △김상우(경행82) = 경기북부청 사이버안전과장 △한도연(경행83) = 전북청 경무과장 △이지준(경행84) = 서울청 112종합상황실장 △이을신(경행84) = 서울청 제3기동대장 △김주원(경행84) = 경찰청 감사담당관 △안문기(법학84) = 경북청 치안지도관 △이호영(경행85) =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임실기(경행85) = 인천 삼산경찰서장 △모상묘(경행85) = 안산 상록경찰서장 △오상택(경행85) = 경기북부청 경무과장 △장원석(경행86) = 제주청 외사과장 △곽영진(경행87) = 경기 북부청 정보과장 △김선섭(경행87) = 경북청 청문감사담당관 △김호승(경행75) = 서울 용산경찰서장 △신성철(경행87) = 강원 영월경찰서장 △김병기(경행88) = 경찰청 테러대응과장 △강은석(경행88) = 경찰대학(교육) △박현규(경행88) = 경찰대학(교육) △여진용(경행89) = 경찰대학(교육) △마경석(경행89) = 서울 동대문경찰서장 △김태현(경행89) = 전북청 경비교통과장 △엄성규(경행90) = 서울청 경비2과장 △임육성(경행89) = 경찰대학(교육) △이관형(경행91) = 충남 청양경찰서장 △김찬수(경행93) = 경찰대학(교육) △김환권(인찰79) = 대전청 경비교통과장 △신현규(역사교육79) = 충북 청 정보화장비과장 △오세찬(화학82) = 경찰대학(교육) △최보현(법학) = BH 국정상황실 △한종욱(대학원박사) = 대전청 보안과장 △이준형(대학원박사) = 서울 청문감사담당관 △이재영(대학원박사)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기태(대학원박사) =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김광식(대학원박사수료) = 경찰청 홍보담당관 △김숙진(행원석사) = 서울 수서경찰서장 △장종근(행원석사) = 울산 청문감사담당관 △김홍훈(행원석사) = 경찰대학(교육) △최복락(행원석사수료) = 경찰대학(교육) △주진우(경찰사법대원) = 서울 청 22경찰경호대장 △장동찬(행원CEO) = 충남 태안경찰서장 △김형섭(행원90) = 제주 청 홍보담당관 △서동수(행원01) = 경북 영양경찰서장



포장기술의 새로운 변화

식품포장의 **Global HUB!**



| 본 사 | 072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40, 유상빌딩 | Tel. 02) 2631-0066 | Fax. 02) 2672-1348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세계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서대문 냉천 센트레빌

남양주 진접 센트레빌

인천 계양 센트레빌

용인 신봉 센트레빌

흑석 센트레빌

이촌 센트레빌

대치 센트레빌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동부건설(주) 부회장 이 중 길 (경제학과 78卒)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집 - 센트레빌

센트레빌
CENTREVILLE

모교 새내기 4,914명 입학

서울·경주 캠퍼스별로 입학식



▲ 서울캠퍼스 신입생 입학식이 2월22일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됐다.

모교는 2018학년도 입학식을 서울캠퍼스는 2월22일 장충체육관, 경주캠퍼스는 2월26일 교내 문무관에서 각각 거행했다.

올해 서울캠퍼스 신입생은 3,067명이며, 수석합격의 영광은 경찰행정학부 한우진(수원 동안고)씨가 차지했다. 수시 경쟁률은 18.01대 1, 정시모집은 5.8대 1

이었다.

경주캠퍼스 입학자는 1,857명으로 수시 1,257명, 정시에 600명을 선발했다. 수시 경쟁률은 5.51대 1, 정시모집은 6.68대 1이었다. 한의예학과 20.45대 1이었다.

한편 입학식 뒤 대학생활 소개 오리엔테이션과 축하공연 등의 행사를 가졌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캠퍼스 6명·경주캠퍼스 9명 퇴임

모교에서 후진양성과 대학발전에 헌신해온 교수들이 2월28일자로 정년퇴임했다. 캠퍼스별로는 서울캠퍼스 6명, 경주캠퍼스 9명이다. 퇴직 교수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모교 명예교수로 위촉된다.

■ 서울캠퍼스 퇴임

△불교학부 박경준(1995.3.1. 부임, 중앙도서관장 역임) △화학과 김홍범(1988.3.1. 부임, 학과장 역임) △국제통상학과 정창근(1993.3.1. 부임, 경영부총

장 역임) △산업시스템공학과 권영식(1981.3.2. 부임, 학과장 역임) △미술학부 김창균(2006.9.1. 부임, 불교미술문화재조형연구소장 역임)

■ 경주캠퍼스 퇴임

△국사학과 김복순 △일어일문학과 노명희 △ICT·빅데이터학부 이태경 △경영학부 조창욱 △글로벌경제통상학부 이영기 △글로벌경제통상학부 임배근 △수학교육과 진대호 △수학교육과 최준상 △생명신소재융합학부 이인자(명예퇴직)

항만시설관리전문법인

BPFC (사)부산항시설관리센터
Busan Port Facilities Management Center

항만법에 의하여 설립된 50년 전통의『항만관리법인』
부산항의 성장과 미래를 함께합니다.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총장대로 24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중앙동4가) 2층
T. 051-400-3100 / F. 051-464-6154

“모교의 명예와 전통 빛내주길”

학사·석사·박사 총 3,800여명 학위 수여



▲ 총장 보광스님으로부터 서울캠퍼스 성적우수 졸업생들이 총장상을 받았다.

서울캠, 박사 등 2,627명 학위

모교 2019년 봄 학위수여식이 서울캠퍼스는 2월18일(월) 중강당에서, 경주캠퍼스는 2월20일(수)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각각 거행되었다.

서울캠퍼스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963명, 석사 540명, 박사 124명 등 총 2,627명을 배출했다.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신입 회원으로 자동 입회된 후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언제 어디서나 자랑스러운 동국인으로서 성공적인 활동으로 동국의 명예와 전통을 더욱 빛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대학원별 석사 학위 △일반대학원 267명 △영상대학원 41명 △경영전문대학원 17명 △불교대학원 21명 △교육대학원 49명 △법무대학원 9명 △행정대학원 36명 △경찰사법대학원 13명 △문화예술대학원 49명 △언론정보대학원 12명 △국제정보보호대학원 26명이다. 박사학위는 △일반대학원 12명 △영상대학원 2명

◆ 성적우수상 △명다혜(불교사회복지) △박보현(영어문학) △유혜림(화학) △문

윤희(법학) △황주웅(경찰행정학부) △홍유진(경영) △주혜미(식품생명공학) △정형동(화공생물공학) △박혜진(자리교육) △권순(영화영상학) △문선아(약학)

◆ 이사장 공로상 △김세훈(북한학) △김도균(경찰행정)

◆ 총장공로상 △박윤민(사회학) △백의현(물리) △최호재(약학) △유광선(경영) △변준형(스포츠문화)

◆ 총동창회장 공로상 △김창용(정외) △이민정(국교) △이창후(산업시스템)

경주캠, 1,417명에게 학위 수여

경주캠퍼스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357명, 석사 58명, 박사 2명, 최고위(CEO) 및 연구과정 등 수료자 57명이 각각 해당 학위와 수료증을 받았다.

◆ 성적우수상 △전체수석=안상은(간호학과) △불교문화대=이혜린(불교아동보육) △인문대=권다솜(영어영문) △과학기술대=임선화(의생명공학) △사회대=함효지(행정경찰공공) △상경대=조영주경영) △사범교육대=정재희(유아교육) △한의과대=박재은(한의)

◆ 이사장 공로상 △채건선(불교학부)

연안해상 유류운송업의 리더
진양1호 취항

열정으로 가득한 도전 에너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주) 진양유조선
대표이사 회장 황 경환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5-7번지
(대우증권빌딩 2층)
전화 : (052) 269-3071~2
팩스 : (052) 261-5556

요람에서 무덤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도심불교의 신모델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새로운 방생 명소

해룡일출大관음사 = 해변힐링마을

(한국불교대학 해변절)

※ B.U.D 山海세계명상센터의 해변절로서 여러시설을 갖추고있음.



- ① 워크샵, 명상힐링캠프 가능한 최신식 시설
- ② 공양, 커피, 음료수(카페테리아), 불교용품점, 서점
- ③ 산중절인 무일선원과 연계가능.
- ④ 방생의 최적지 - 감포몽돌해변
- ⑤ 갤러리, 법회장소 등 활용가능
- ⑥ 10대 제자사리, 석경, 대형고려16나한 고구려불, 건칠불 봉안
- ⑦ 템플스테이 - 개인 및 단체이용

 해룡일출大관음사
(한국불교대학 해변절)

경북 경주시 동해안로 1740 T.054-745-9229

홈페이지 한국불교대학 /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카카오스토리 buddha8228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hdanth>

명실공히 세계적 도량으로 우뚝 선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는
불교인의 자부심이요, 한국불교의 비전입니다.

교 육 참좋은이서중 · 고등학교, 참좋은 어린이집 · 유치원
네팔 카트만두 고카르나스쿨, 룸비니 메타스쿨, 포카라 보육원
라오스 봄비엥 방과후학교

의 료 참좋은 요양병원, 노인전문요양원 무량수전, 참좋은 기억학교
참좋은 치매주간보호센터

복 지 참좋은노인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 참좋은우리집
참좋은지역아동센터, NGO B.U.D

문 화 도서출판 좋은인연, 월간법보시,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국내도량 대구큰절, 감포 무일선원 무문관 & 세계명상센터,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포항도량, 서울도량, 팔공산도량, 영천도량, 청도도량

해외도량 미국 뉴욕도량, 중국 청다오도량, 호주 시드니 & 시티분원
이집트 카이로분원, 이스라엘분원, 네팔 룸비니 도량, 네팔 포카라 분원

기 타 상조서비스, 극락납골봉안당, 참좋은신문사(인터넷)

 기도성취 및 천도대도량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큰절 (053)474-8228
(영대병원 네거리, 지하철 1호선 2번 출구)

www.guro.go.kr

Gro 구로구

구로구청장 이 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Tel. (02) 860-2323 Fax. (02) 860-3010
Mobile. 010-4107-0945 E-mail. leesung@guro.go.kr



세계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Global Outsourcing Leading Company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MP(Manufacturing Production) / FM(Facility Management) / Security / Global Business /
LS(Logistics Service) / Silver Care Service / GreenS Service

누구나 함께 하고 싶은 기업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 타워 동관 6F Tel. 1588-2239, 02-828-3939 Fax. 02-816-2669 <http://www.samkoo.com>


Samkoo
주식회사 삼구아이엔씨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회비
납부계좌

국민은행 006001-04-237869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 2018년 11월 28일 ~ 12월 31일 접수분 >

고문분담금
100만원



한우삼 (63농학)
태양금속공업(주) 회장



홍파스님 (63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감사
100만원



남택호 (80경영)
공인회계사

부회장
100만원



김오현 (76체교)
아미간 회장, 200만원



강진수 (81법학)
일품한우 대표

모교 경영학부 조교수

길종구 (82경영)
김영철 (68경영)
초대한정식 대표



길종구 (82경영)
모교 경영학부 조교수



김영철 (68경영)
초대한정식 대표

신동수 (71경영)
(주)유상 회장



신동수 (71경영)
(주)유상 회장

유병완 (64상학)
사업



유병완 (64상학)
현대빌딩 대표

총재권 (94행대원)
대원인터넷내셔널 대표

부회장

상임이사 (20만원)

어윤소 (65경제)
오수환 (84경제)
유종희 (61농경)
이춘섭 (78체교)
최종기 (67농학)
편영배 (92산대원)
한광태 (83경영)

김기태 (94경대원)
김보현 (69정외)
김복희 (68경제)
김석두 (04불대원)
김성연 (87통계)
김영배 (78경영)
김용선 (89회계)

서병구 (61상학)
손문수 (67경영)
송기봉 (74국교)
송달용 (54농학)
송재신 (94회계)
송희민 (57정치)
양석충 (81경영)

장의식 (82경제)
전철수 (74연영)
정승이 (05경제)
정용근 (80행정)
정지환 (10불대원)
정현 (91화학)
조동현 (64농경)

장세균 (67철학)
전북일보 논설위원

김용임 (83국민윤리)
김웅 (82한문)
김정현 (90국민윤리)
김창용 (08체교)
김형종 (79불교)
노여진 (03국교)
박상재 (87행정)
박수정 (85국문)
박영동 (76불교)
송자선 (88일문)
안병근 (84국사교육)
양경숙 (97교대원)
유승현 (02국교)
이연숙 (78사교)
이정미 (80영문)
이혜주 (96역사교육)
정부근 (91농생)
조대정 (92국민윤리)

지도위원 (30만원)

김경순 (65화학) 월10
정동진 (65국문) 20

김경남 (60정치)
김남선 (67통계)
김문경 (64농경)
김상경 (77법학)
김윤종 (66정외)
김창기 (95경대원)

김기태 (94경대원)
김보현 (69정외)
김복희 (68경제)
김석두 (04불대원)
김성연 (87통계)
김영배 (78경영)

서병구 (61상학)
손문수 (67경영)
송기봉 (74국교)
송달용 (54농학)
송재신 (94회계)
송희민 (57정치)

장의식 (82경제)
전철수 (74연영)
정승이 (05경제)
정용근 (80행정)
정지환 (10불대원)
정현 (91화학)

이좌범 (64사학) 10

김용임 (83국민윤리)
김웅 (82한문)
김정현 (90국민윤리)
김창용 (08체교)
김형종 (79불교)
노여진 (03국교)
박상재 (87행정)
박수정 (85국문)
박영동 (76불교)
송자선 (88일문)
안병근 (84국사교육)
양경숙 (97교대원)
유승현 (02국교)
이연숙 (78사교)
이정미 (80영문)
이혜주 (96역사교육)
정부근 (91농생)
조대정 (92국민윤리)

김완식 (64농학)
김윤묵 (91행대원)
노준식 (58정치)
박삼선 (51법학)
방조원 (77행대원)
유대진 (59상학)
윤홍섭 (65상학)
이광세 (86경대원)
정대진 (59법학)

방재홍 (79경대원)
윤홍섭 (60경영)
이준용 (04행대원)

류병태 (78체교)
평생회비 (50만원)

박준영 (88전자공학)
김진엽 (72토목)
김형식 (00경대원)
류윤현 (71경영)
문해철 (88경영)
박윤태 (64상학)
박재필 (71경제)
박준희 (67행대원)
박천홍 (65상학)
박탁규 (87법학)
박택순 (81수교)
박훈 (73경대원)
김기성 (67식공)
김기수 (58법학)

김기태 (94경대원)
김보현 (69정외)
김복희 (68경제)
김석두 (04불대원)
김성연 (87통계)
김영배 (78경영)
김용선 (89회계)
김종호 (57정치)
김준영 (88전자공학)
김진엽 (72토목)
김형식 (00경대원)
류윤현 (71경영)
문해철 (88경영)
박윤태 (64상학)
박재필 (71경제)
박준희 (67행대원)
박천홍 (65상학)
박탁규 (87법학)
박택순 (81수교)
박훈 (73경대원)
김기성 (67식공)
김기수 (58법학)

장의식 (82경제)
전철수 (74연영)
정승이 (05경제)
정용근 (80행정)
정지환 (10불대원)
정현 (91화학)
조동현 (64농경)
조종구 (06행대원)
주보연 (79불교)
진희언 (06식공)
최광수 (82화공)
최수경 (95한의)
최승도 (65상학)
최종열 (82토목)
최철영 (64행정)
한성일 (94법학)
함현진 (96정보관리)
허환 (58경제)
홍면유 (68자동제어)
이정용 (79농학)
이정우 (75농학)
이정우 (88건축)
이준수 (01경영)
임운기 (60농학)

권오정 (02교육)
권하나 (00중문)
김세연 (01불교)
김수정 (93수교)

김용임 (83국민윤리)
김웅 (82한문)
김정현 (90국민윤리)
김창용 (08체교)
김형종 (79불교)
노여진 (03국교)
박상재 (87행정)
박수정 (85국문)
박영동 (76불교)
송자선 (88일문)
안병근 (84국사교육)
양경숙 (97교대원)
유승현 (02국교)
이연숙 (78사교)
이정미 (80영문)
이혜주 (96역사교육)
정부근 (91농생)
조대정 (92국민윤리)

이사 (10만원)

김승기 (69경영)
김진관 (11정외)
박용하 (77정외)
박운규 (85토목)
박주근 (73경행)
신화섭 (84화학)

강기영 (81건축)
강태양 (81행정)
김경식 (78불교)
김규연 (01서양화)
김기성 (67식공)
김기수 (58법학)

박천홍 (65상학)
박탁규 (87법학)
박택순 (81수교)
박훈 (73경대원)
방지연 (08전자공학)
백승수 (91한문)

이영보 (59법학)
이은기 (73법학) 10
이정용 (79농학)
이정우 (75농학)
이준수 (01경영)
임운기 (60농학)

허환 (58경제)
홍면유 (68자동제어)
이정용 (79농학)
이정우 (75농학)
이정우 (88건축)
홍청은 (86불교)

권하나 (00중문)
김세연 (01불교)
김수정 (93수교)

김용임 (83국민윤리)
김웅 (82한문)
김정현 (90국민윤리)
김창용 (08체교)
김형종 (79불교)
노여진 (03국교)
박상재 (87행정)
박수정 (85국문)
박영동 (76불교)
송자선 (88일문)
안병근 (84국사교육)
양경숙 (97교대원)
유승현 (02국교)
이연숙 (78사교)
이정미 (80영문)
이혜주 (96역사교육)
정부근 (91농생)
조대정 (92국민윤리)

부회장

김태현 (84불교)
법무법인 창조 실장

차연신 (85연영)
YSPMC 대표이사

최석권 (84법학)
창조 특허법률 이사

원경스님 (95불대원)
이관택 (75무역)
이병우 (75경영)
정강훈 (77공업경영)
정정섭 (85전산)
조숙영 (85국사교육)
주보연 (79불교)
차수남 (75전기)
현승유 (65경제)
홍근영 (64행정)

고문 송석환
500만원

고문 홍파스님
100만원

고문 서영준
100만원

수석부회장 박대신
200만원

상임이사 (20만원)

유한종 (84경대원)
이학승 (78불교)
정광시 (80경대원)
지순구 (79행대원)

정용석 (08교대원)

동국대부속여자중학교
30만원

상임부회장 김환배
100만원

상임부회장 김오현
100만원

상임부회장 윤병관
100만원

상임부회장 오정석
200만원 상당 주류

평생회비 (50만원)

이사 (10만원)

강길구 (64식공)
강덕선 (64경제)
김종태 (85법학) 5

김종필 (82행정) 월3
누계 : 114만원

연회비 (3만원)

구광모 (74행정)
이권하 (76식공)
이윤래 (61행정)

민현호 (81영문)
박정후 (02통계)

동명사 2
누계 : 118만원

발전기금

기금 (10만원)

2018 동국인의 밤 협찬금



All For One

Leading you Toward a Greater Future

더 나은 미래 환경을 위해

1990 설립, 인원295명
신용등급 A



벤처/INNOBIZ 인증

'99년 첨단교통연구소
설립

시스템 통합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사회적 기업 – ITS 사회적 편익 12조원,
건설 비용의 5%로 도로혼잡 감소,
온실가스 년간 4만 톤 감축,
상생발전과 일자리 창출

특화된
강소기업

글로벌 시장 진입 추진

전문가
집단종합서비스
기업

01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ITS)

▶ ITS 시스템



▶ C-ITS

운전자와의 양방향성 정보공유로
자율주행자동차 실현가능성을 향상

▶ 스마트톨링 시스템

교통환경의 스마트 하이웨이
교통운영 및 다차로 무정차
요금징수가 가능한 융복합적
기술의 교통관리시스템



02 교통신호 제어기

▶ 스마트 교통신호 제어기

제어기 개별전력량
측정, 관찰카메라로
보안, 방범 기능 수
행 및 DC화로 소형화



04 무인단속 CCTV

▶ 기능 선택형 무인단속 시스템

검지센서가 비매설형 (영상식),
과속/신호/꼬리물기/끼어들기
통합단속 가능



03 LED 신호등

▶ LED 신호등 – 신제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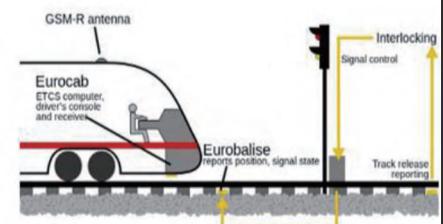
▶ 음성신호기 내장형 보행등 음성안내시스템을 일체화



05 철도신호시스템

▶ 철도 설계/관리 시스템

▶ ATP/CBTC/CTC 시스템 통신기반 열차 보호, 제어장치



진우산전주식회사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9 (신사동, 진우빌딩) Tel : 02-868-0500 Fax : 02-6011-9205
[공장]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마전길 25-1 Tel : 031-541-6251 Fax : 031-541-6255
[마포지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1길 24 (성산동) Tel : 02-325-6251~4 Fax : 02-325-6255